

진정한 교제

-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 애즈베리신학교 교수

독자 질문/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의 공동체를 흉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깊이 배울 수 있는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의미로서의 공동체는, 소달구지 몰던 세대든지 인터넷 세대든지 간에,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동체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그의 몸을 이루면서 서로 만났다; 이러한 교제는 성령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선교의 사명이 있었다. 즉, 신약성경의 공동체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한 목표 -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것 - 을 향하고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피상적인 개념(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단지 친절하거나 예의바른, 또는 사교적인 모임으로 잘못 인식되기 쉽다. 그것은 키와니스 클럽(역주, 미국, 캐나다 실업가의 사교 단체)이나 이웃 간의 식사 교제와 큰 차이가 없는 “교제”라는 최소 공통 분모가 되어가고 있다. 흔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표시도 없고, 주변의 불신자 사회의 가치관에 아무런 도전도 주지 못한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공동체였다

그렇지만, 맨 위에 제시된 질문이 해답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라는 구절들이다.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많은 구절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구절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서로에게 헌신하라(NIV, 롬 12:10), “서로 중 노릇하라”(갈 5:13),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 6:2).

첫 번째로, 이러한 구절들의 대부분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뜻한다.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보다는 그들의 행동 -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써 공개적으로 알려진 삶 - 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뒤바꿔서 행동은 잊어버리고 태도에만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 “서로”라는 구절들 전부는 *사회적인 배경* -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알맞은 사회적 구조 - 을 암시한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는 본래 가정 모임들의 네트워크였으므로 이러한 행동으로서의 교제가 더욱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오늘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서로” 함께 하는 교제가 가정 그룹이나 다른 소그룹 구조 - 성경공부 그룹, 성가대, 등등 - 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들 전부가 신약성경의 공동체만큼 의의적이고 깊은 관계는 아니다.

세 번째로, “서로”라는 구절들 거의 전부는 명령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즐겨 묵상할 수 있는 추상적인 영적 진리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에 대한 지시인 것이다. 신약성경은 정확히 이러한 “서로”에 관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맞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 자체인 것이다

그 시절에 그랬다면, 오늘날에는 더욱 더 그렇게 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상호간의 격려(“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형제 자매들이 의도적이었다고 말해준다: 믿음을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하도록 서로를 얼마나 격려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 본문은 모이기를 게을리 하는 나쁜 “습관”에 젖어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느 연령층이나 어느 문화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의 친밀함이나 모임의 빈도 수나 모임을 위해 대가 치르는 것을 희석시키는 것은 ‘유혹’이다. 아니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역사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소속되려는 기대가 강한 교회들은 공동체적인 삶의 강도를 낮추는 교회들에 비해서 더욱 생명력 있고, 더 빨리 성장하며, 세속 문화에 저항하는 힘이 더욱 강하고, 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소그룹에서 당신의 관심사와 “결단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과 “서로”라는 구절들에 묘사된 바와 같이, 얼굴을 맞대는 공동체는 교회의 이차적인 부가 장치가 아니라 바로 교회 그 자체인 것이다.

1738년에 존 웨슬리 (John Wesley)가 Fetter Lane Society로 알려진 종교 단체를 시작했을 때, 그는 “야고보에 의해 씌어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또한 피터 뵐러 (Peter Böhlér)의 충고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참고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이었다.

웨슬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서 알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얼굴을 맞대는 공동체 안에서만 발전될 수 있는 신뢰와 정직을 필요로 한다. 그게 바로 “치료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교회들이 알게 되는 길이다.

* 출처 :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4년 4월호(통권 178호) 258-259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사용합니다(<http://www.durano.com/moksin>).